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5, pp.401-406  
<https://doi.org/10.29212/mh.2025..135.40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참관기] 태권도와 함께 세계로 나간 국군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윤시원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사연구부 연구원

### I. 들어가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2021년부터 조사연구부의 주관으로 매년 국군의 해외파병과 베트남전쟁, 민군작전 등을 주제로 조사연구발전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태권도’를 주제로 열렸다.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무술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은 현재 전 세계에 212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축구연맹보다 회원국이 하나 더 많다. 2025년 현재 한국과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가 194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태권도는 어떻게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잡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국군의 역할이 컸다.



주요 참석자 기념사진 촬영

대한민국 국군은 태권도 태동기부터 큰 영향을 끼쳐왔고 태권도가 세계화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국군과 태권도의 관계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2025년 5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개최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군의 해외파병과 태권도 세계화의 역사』라는 주제의 이번 학술세미나는 두 기관 외에 태권도에 관심을 가진 각계각층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하였다. 학술세미나는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의 기조강연을 비롯한 4편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군의 해외파병과 태권도의 세계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II. 태권도 세계화의 주역, 대한민국 국군

이날 행사는 태권도진흥재단 신성일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오성대 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기조 강연을 맡은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은 태권도의 역사와 정신을 소개하고 해외에 태권도 교육을 위해 파병된 군인들이 오늘날 태권도가 세계적인 무예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규석 회장은 80세가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군사편찬연구소 오성대 소장  
태권도진흥재단 신성일 사무총장의 감사패 교환

행사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직접 발차기 시범을 보이며 청중의 열띤 박수를 받기도 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국군 태권도 역사의 시작과 변천」이라는 제목으로 최점현 사범(예비역 중령, 태권도 9단)이 진행했다. 최사범은 먼저 태권도의 뿌리가 되는 고대의 수박, 조선시대의 권법 등 전통무술에 관해 설명하고 이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현대적인 무술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소개했다. 그리고 1950

년대에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당수도 5대 기간도장 중 하나가 국군이 중심이 된 오도관이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군대의 태권도 수련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최사범은 당수도가 태권도라는 명칭을 얻고 1959년 대한 태권도협회 창립될 때 역시 국군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955년 태권도라는 명칭이 제정되는데 바로 제29사단장이었던 최흥희 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군대를 중심으로 발전하던 태권도는 1957년 월남의 응오딘지엠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해외로 소개되면서 세계화의 시초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사범은 발표를 마치면서 태권도를 국군의 정규 훈련 과목에 반영하는 한편 군과 민간부문의 태권도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향후 과제를 설명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다음으로는 군사편찬연구소 이신재 조사연구부장이 「태권도 세계화의 출발점, 주월태권도교관단」이라는 제목으로 베트남전쟁 시기 국군의 태권도 보급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가장 먼저 베트남전쟁 기간 중 12명의 한국군에게만 수여된 태극무공훈장 수훈자 중 1명이 태권도교관 최범섭 소령이었음을 지적하며 주월태권도교관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1957년 응오딘지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군사협력을 논의하고 2년 뒤인 1959년 국군 태권도 선수단이 남베트남을 시범 방문하고, 1964년 국군이 본격적으로 파병되면서 10명의 태권도교관단이 파견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주월태권도교관단 태권도교육을 통해 전장의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민사심리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쟁수행 수단으로 큰 역할을 했음을 지적했다. 이 부장은 태권도교관단의 편성과 구체적인 활동을 설명하면서 주월태권도교관단이 베트남 뿐만 아니라 크메르(캄보디아)에도 태권도를 보급했음을 지적하면서 이때 국가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태

권도 보급이 현재 태권도가 세계화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형 군사원조 모델의 기초를 마련하고 군사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III. 끝나지 않은 국군의 역할과 앞으로 남은 과제들

행사의 후반부는 오늘날 국군이 태권도 세계화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미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세번째 주제 발표는 유엔평화유지군 동명부대 소속으로 레바논에 두 차례 파병되었던 방용진 상사(육군 제3군단 제1산악여단)의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 태권도 보급 사례」였다. 이 발표는 직접 레바논에 파병되어 태권도 교육을 비롯한 민군작전을 수행한 당사자의 발표로 주목을 받았다. 방 상사는 동명부대의 전반적인 임무를 먼저 소개한 뒤 민군작전의 일환으로 실시한 태권도 교육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현지의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동명부대 태권도 교관들의 열정과 레바논인들의 호응으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태권도 교육활동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양국 문화교류의 매개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발표에서는 방용진 상사가 3진으로 파병되었을 당시 만난 알쿠라이 자매가 태권도에 입문해 2단 까지 성장한 일화를 소개해 청중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발표는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송봉수 학예연구사가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 기증자료의 구성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현재까지 국립태권도박물관에 기증된 자료는 총 131건 410점에 이르며 그 유형도 도복, 교본, 사진, 수료증, 감사장, 훈장, 기념패 등 다양하다. 송 학예연구사는 다양한 기증자료들의 보존 및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향후 태권도

관련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으로는 주월한국군 태권도교관단에서 간행한 『태권도』, 주월한국군 태권도 도복 등 주요 유물을 설명하고 유물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송 학예연구사는 소장 유물의 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위수 박사(예비역 준장, 향토방위연구소)의 사회하에 발표자들과 이승필 대전광역시 태권도협회 상임심판, 서성원 화성의과학대학교 태권도학과 겸임교수, 박동찬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김건호 전쟁기념관 학예연구사 등 4명의 토론자가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을 통해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에서 군대가 수행한 핵심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 IV. 나가며

6·25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로는 군대의 역할이 꼽힌다. 한국의 산업화시대에 군대는 정치와 경제를 포함해 한국 사회 곳곳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계도 군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군이 한국을 대표하는 무술인 태권도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태권도의 역사를 체육사 뿐만 아니라 군사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 행사를 마무리 하면서 군사사 대중화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